

새로운 시각에서 ‘국제법’을 바라보다.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법 전공

신가영

<목차>

- I. 들어가며: 참여 동기와 기대
- II. 샤먼 아카데미 강좌: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본 국제법
 - 1. 각 강좌에 대한 간략한 소개
 - 2. 국제법의 ‘새로운 시각’
- III. 토론과 교류, 시야를 넓히다
 - 1. 교수님과의 교류
 - 2. 학생들과의 교류
- IV. 나가며

I. 들어가며: 참여 동기와 기대

국제법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두 번째 학기를 마치며 석사 논문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어떠한 주제로, 어떻게 논문을 써야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던 중, 학교 홈페이지에서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의 「유민펠로우 국제 강좌 참가 지원」 프로그램 관련 공지사항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제법 아카데미에서 세계 유명 석학들의 강의를 듣고, 여러 국적의 국제법 전공생들과 교류하며 국제법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지난 해 샤먼 국제법 아카데미에 다녀온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꼭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했기에 지원을 결심했습니다.

석사과정 전공으로 국제법을 선택하였을 때, 여러 선배들이 각 국에서 열리는 국

제법 아카데미를 통해 국제법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다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다양한 국제법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금전적으로 크게 부담되었기에 선불리 참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있어, 유민펠로우 지원 프로그램은 하나의 큰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이번 여름 샤먼 국제법 아카데미에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샤먼 아카데미로 떠나며, 저는 샤먼 아카데미를 통해 제가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감사하게도,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제가 다른 유민펠로우를 대표하여 선정 소감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샤먼 국제법 아카데미를 통해 학문적 고민에 깊이를 더하고, 국제법을 바라보는 시야를 더 넓힐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품고 샤먼 아카데미에서의 3주를 시작했습니다.



사진 1. 2019년 샤먼 국제법 아카데미 단체사진



사진 2
2019년
샤먼
국제법
아카데미
입학식

II. 샤먼 아카데미 강좌: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본 국제법

1. 각 강좌에 대한 간략한 소개

2019년 샤먼 국제법 아카데미는 3주 동안 총 7명의 교수님의 수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매일 최소 2시간 최대 6시간 동안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수업은 Xiamen Millenium Harbourview 호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주에는 Laurence Boisson de Chazournes 교수님의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The Public and Private Elements' 수업과 Shinya Murase 교수님의 'International Law of the Atmosphere' 수업 및 Ruth Wedgwood 교수님의 General Course of International Law 수업을 들었습니다.

먼저, **Laurence Boisson de Chazournes 교수님 수업**에서는 국제분쟁해결제도를 전반적으로 배웠습니다. 국제분쟁해결제도의 발전, 등장 배경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그러한 발전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다양한 국제분쟁해결제도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자주 접했던 국제사법재판소(ICJ) 및 UN해양법협약 상의 분쟁해결제도와 WTO 분쟁해결제도를 비롯하여, 투자자-국가간 중재제도 및 EU 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국제법 발전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해결제도가 수립되었으며, 이러한 '증식(multiplication)' 가져오는 결과에 관하여 토론했던 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재판소간 위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각 분쟁해결기관마다 다른 재판결과를 내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서로의 재판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듯한 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배우며, 국제법상 분쟁해결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Shinya Murase 교수님의 수업에서는 현재 교수님께서 UN국제법위원회(ILC)에서 작업 중인 대기보호에 관한 Guideline 초안에 관한 논의를 심도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ILC 위원의 초안 작성 과정에 대해 직접 강의를 듣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대기'의 정의부터 시작하여, 각 용어와 그 정의가 어떻게 채택되었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또한 이를 둘러싼 국가 및 ILC 위원들의 토의 과정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ILC는 국제법의 주요 조약인 조약법협약, 외교관계협약 및 국가책임에 있어 권위를 가지고 인용되는 국가책임초안 등을 작성한 UN의 주요 기관 중 하나입니다. ILC에서 특별보고관으로서 직접 초안을 작성 중인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문언으로 읽기만 하던 ILC 작업의 자세한 과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Ruth Wedgwood 교수님은 국제법에 관한 토론 수업을 진행해주셨습니다. Wedgwood 교수님은 미국 변호사이시며 국제법 및 국제형사법, 무력충돌법에 관한 전문가로서 여러 분야에 관하여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경험과 시각을 나누셨습니다. 국제법에 대한 개론을 배울 것이라 예상했었기에, 교수님의 수업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전통국제법에서 자주 논의되지 않는 ‘기업의 책임’과 관련하여 토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남북한 문제 등에 대하여 유일한 한국 학생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둘째 주에는 중국 교수님이신 Zeng Huaqin 교수님의 ‘China’s Contributions and Initiative to International Economic Law’와 Chen Huiping 교수님의 ‘Chinese Practice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두 중국 교수님 모두 ‘중국적’ 시각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Zeng 교수님은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중국의 실행과 기여를 소개해주셨으며, Chen 교수님은 중국이 체결한 양자간 투자협정조약(BIT)이 어떻게 바뀌고 발전해왔는지 설명해주셨습니다. 특히 Chen 교수님 수업에서는 중국이 체결한 BIT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으며, 해당 BIT를 통해 중국을 상대로, 그리고 중국 기업이 제기하는 투자분쟁 소송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중국의 통상 및 투자정책과 제도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만 두 교수님 수업 모두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중심으로 중국의 시각과 입장 위주의 설명이었기에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Abdulqawi Yusuf ICJ 재판소장님의 ‘International Law and the Public Law of Africa’ 수업과 Anthea Roberts 교수님의 ‘Investment Treaty Law, Arbitration and Policy’ 수업을 들었습니다.

Yusuf 재판소장님의 수업은 사면 국제법 아카데미 수업 중 가장 인상깊은 강의였습니다. 우선 ICJ 재판소장님을 직접 만나 법고 ICJ에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었습니다. 국내 수업을 통해서는 자주 접하지 못했던 아프리카에서의 국제법 실행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인권’에 있어 ‘Collective rights’에 기반을 둔 접근에 대해 이야기해주신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의 국제책임, 특히 UN의 국제책임과 관련된 논의가 흥미로웠습니다. 이에 관하여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과 별도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Roberts 교수님은 투자와 중재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전공 분야가 아니라 해당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이 되는 원칙부터 설명해주시면서도 현재의 국제적 상황에 대한 적용과 논의까지 이끌어내신 점이 가장 인상깊었습니다. 특히 ‘지리경제학(geo-economics)’ 관련 논의가 기억에 남습니다. 한 국가 내부에서의 불평등 심화, 국가 간 경제수준의 평준화, ‘경제’ 갈등과 ‘안보’ 갈등, 경제 통합과 제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시각에서 미중간 경제갈등에 대한 논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진 3 Roberts 교수님 수업

2. 국제법의 ‘새로운 시각’

샤먼 국제법 아카데미 강의는 국제법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각 수업에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국제법 시각에 대한 비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Yusuf 재판소장님의 강연을 통해 아프리카의 시각을, 중국 교수님들의 강연을 통해 중국의 시각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Roberts 교수님은 투자 분쟁 분야에서 여러 Narrative가 있으며, 어떠한 시각으로 분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각 수업의 내용이 국제법 교과서를 통해서는 접하기 어려운 의견이었기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Yusuf 재판소장님의 수업에서, 아프리카의 국제법 논의에 대해 배우며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인권분야에 있어 개인적 권리(individual rights), 집단적 권리(collective rights)에 관한 논의를 배울 수 있었으며, peoples’ rights라는 개념에 기초한 개발권(right to development) 논의 역시 신선하고 흥미로웠습니다. 각 개별 개념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법학 공부에 있어 권리와 의무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Roberts 교수님 수업에서, 수업 중간에 세계지도를 보여주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심에 태평양이 있는 세계지도였습니다. 그 지도를 보며, 교수님께서 ‘저는 처음 이 지도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었던 캐나다와 루마니아에서 온 친구들 역시 충격적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같은 국제법을 공부하고, 같은 ‘세계’에

살아가면서도 각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샤먼 아카데미를 통해 저는 국제법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관점’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계속하여 국제법을 연구하고자 하는 학생으로서, 제가 지금 ‘어떤 시각’으로 세계와 국제법을 바라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III. 토론과 교류, 시야를 넓히다

1. 교수님과의 교류

샤먼 아카데미에서의 각 강좌 쉬는 시간 및 강의 종료 후에 여러 교수님께 직접 질문을 드리며 교류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Ruth Wedgwood 교수님과 첫 수업 종료 후에 같이 커피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교수님의 경험, 개인적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Murase 교수님의 연구 분야이신 대기보호와 관련해서 수업 중에 직접 질문을 드리고, 수업이 종료된 후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에 걸쳐 발생하는 환경오염, 환경에 대한 ‘누적적 영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수님께서서는 기존 판례를 통한 접근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제가 깊게 공부한 분야가 아니라 더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하였으나, 교수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Yusuf 재판소장님과는 국제기구의 국제책임에 대하여 UN평화유지군 사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ICJ 소장으로서 재판소장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샤먼 아카데미 강의에서 많은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졌으며, 모든 교수님들께서는 그런 질문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셨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시간을 더 내어 질문에 답해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 해에 샤먼 국제법 아카데미에 방문하게 되는 다른 학생들도 이러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학생들과의 교류

다른 한국인 유민펠로우 없이 혼자 샤먼을 방문하는 것이었기에, 그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기대 밖으로,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배경에서 온 친구들과 각자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국제법에 대한 학문적으로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모로코에서 태어나 캐나다로 이주한 친구와 루마니아에서 영국으로 유학한 친구, 중국에서 국제법을 공부

하며 변호사 활동을 하는 친구와 매일 점심식사를 같이하며 서로의 문화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모두 다 ‘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캐나다, 영국 및 중국의 법체계에 대해서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캐나다 퀘벡 주의 법체계에 대한 논의가 흥미로웠습니다. 직접 투자소송에 참여하는 중국 변호사 친구를 통해 중국 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샤먼 곳곳을 여행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구랑위를 방문하고, 식물원에 가며 중국에 대한 인상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으로 아시아를 방문한 친구들이었기에 그들이 어떻게 아시아를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기대하지 못했지만, 많은 친구들을 만나 교류하며 즐거운 3주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Yusuf 재판소장님 및 Murase 교수님께서 약 30년 전에 헤이그 아카데미에 참여했을 때 만난 친구들과 아직도 교류하고 만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샤먼 국제법 아카데미에서의 인연 역시, 그렇게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 4 구랑위 여행



사진 5 여행



사진 6 Yusuf 재판소장님 및 함께 공부한 친구들

IV. 나가며

샤먼 국제법 아카데미에서 저는 국제법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에 대해 고민했으며, 다양한 관점을 가진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국제법 강의만을 들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그보다 더 넓고 풍부한 경험을 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샤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깊은 연구를 할 수 있는 학자로 거듭나기를 스스로 기대해봅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홍진기법률연구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